

‘自燈明 法燈明’, 당신이 곧 부처이니...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9. 근본불교의 기본적 성격 ①

법 아래 평등하다는 것
붓다는 병고를 참고 견디면서 겨우 원기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때 아난다(아난)는 이 스승에게 절을 한 다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세존께서 전에 병이 심했을 때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사방이 캄캄해진 듯한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세존께서 무엇인가를 비구승가(僧伽)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일이 없이 세상을 떠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헤아려 보자. 아난다가 이해한 바에 의한다면 이 스승은 지금 현재에 교단(敎團)의 지도자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다면 반드시 다음 지도자에 대한 지명(指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최후의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붓다의 생각은 달랐다.

“진실로 아난다여, 만일 내가 나는 비구승가의 지도자든가, 비구 승가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최후를 맞이해서 비구승가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러나 아난다여, 나는 이 비구승가의 지도자도 아니며 또 비구 승가는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아난다여, 나는 최후에 있어서도 비구승가에 관해서 말할 아무것도 없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불교승가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서로 선지식(善知識)(착한 벗)이며 평등하며 화합하는 단체가 되어 서로 도우며 격려하는 것을 그

근본정신으로 한다. 따라서 거기에는 지배하는 자도 없으며 지배 받는 자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아래 있으면서 평등하다. 붓다도 또한 본래는 이러한 평등·화합한 단체의 한 사람의 단원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붓다의 후계자로서 어떤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필요 없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교단에 있어서 붓다의 지위는, 역시, 어떤 특별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한 일 아니다. 이 길은 바로 붓다라는 스승에 의해서 깨달아졌으며 설명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스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인도되어 여기에 몸을 던진 것이다. 몸을 던진 후에도 언제나 이 스승을 우러러보며 법을 근본으로 하며 규범으로 하며 의처(依處)로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직제자(直弟子)들이 여기에 그 길의 주(主)가 있으며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도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하며 이 길의 본래의 모습을 더듬어 보면, 그것은 법을 근본으로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앞세우는 길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붓다는 지금 아난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자기의 주인은 자기 뿐

그 두 번째에는, 이 길은 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주(自主)이어야 한다는 발언(發言)이었다. 앞에서 말한 것에 관해서 붓다는 다시 또 아난다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아난다여, 진실로, 이 시각에 있어서도, 또 내가 죽은 후에 있어서도 스스로를 주(主)

로 하며, 스스로를 의소(依所)로 하며, 다른 사람을 의소로 하는 일없이 또 법을 주(主)로 하며 법을 의소로 하며, 다른 것을 의소로 하지 않으면서 수행(修行)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아난다여, 그러한 사람은 내 비구들 가운데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이와 같은 언급은 이미 앞에서 말한 것이지만 아무리 강조하여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불교에 있어서는 매우 기본적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다. 세상에는 종교를 신(神)에게 매달리는 인간의 길이라고도 한다. 신앙(信仰)이란 이러한 길에서 인간이 신(神)에게 절대적으로 빙의(憑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제 붓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길에 있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의처(依處)는 없다. 이런 뜻에서 이 길은 무엇에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자주(自主)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유명한 <법구경(法句經)>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기의 의소는 자기 뿐이니라,
다른 것에 무슨 의소가 있겠는가.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되었을 때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붓다의 말씀처럼 진실로 의지할 것은 다만 자기와 그리고 법 뿐이라는 뜻이 된다.

자기 형성의 의지처(依支處)

이것을 다시 오늘날의 이해(理解)에 알맞도록 설명한다면, 이 길은 철두철미(徹頭徹尾) 인간의 자기 형성의 길로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길에 있어서 간구(懇求)되는 것은 신(神)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죄를 용서 받으며 구원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신의 은총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노력하지 않으면서 재물

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며, 또 공로 없이 영예(榮譽)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다. 이 길에 있어서 간곡히 추구되는 단 하나의 길은 앞에서 <법구경>의 표현으로서 말한다면 잘 조어(調御)된 자기의 확립(確立)이다. 이것을 현대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훌륭한 자기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떠한 자기를 형성하여야 하는가. 그 이상상(理想像)은 곧 붓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자기를 이러한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할 수 있는가. 그 이론과 실천은 여러 방편(方便)으로 이 스승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더욱이 이 스승은 이미 그 이상(理想)의 인간상을 자기 한 몸에 구현(具現)하면 “그대들도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만일 이 길을 구현(具現)하는 이론에 관해서 또는 실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긴다면, 이 스승은 언제나 간곡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이 스승의 제자들간에 처(處)해 있었던 상황(狀況)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승은 얼마 후에는 임종(臨終)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한 아난다는, 슬픔과 함께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처소에 가서 문지방을 잡으면서 서럽게 눈물 흘리며 울었다.

그가 황급히 스승 앞에 다가갔을 때 스승은 그를 돌아다보면서, 먼저 오랫동안 시자(侍者)로서의 노고(勞苦)를 치하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아난다여, 후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의 스승의 말씀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미 우리에게 스승이 없다’ 라고, 그러나 아난다여, 내에 의해서 설교된 교법과 계율(戒律)은 내가 간 후에도 너희들의 스승이 되리라.”

이것도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 멸후(滅後)의 불교의 모습에 관한 중대한 발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군산 동국사로 환수된 조선시대 가로불화 ‘쌍림열반도’.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 모습과 설법을 담고 있다. 부처님은 마지막 자신의 의지처는 곧 자신이며 법에 의지해 수행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다.



행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연기 법칙과 무아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을 경전이라 한다. 그 술한 경전에는 두 가지 핵심 사상이 담겨 있다.

앞 부분에서 밝혔듯이 한쪽 수레바퀴는 중도사상(中道思想)이요, 다른 쪽 수레바퀴는 연기 법칙(緣起法則)이다. 여기서는 연기 법칙을 설명하려 한다.

우선, 연기에 대한 ‘상응부 경전’에 있는 말씀부터 옮겨 보겠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멸하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이렇듯 연기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물에는 조건으로 인한 존재가 있을 뿐이다.

존재의 소멸도 조건으로 인한 없어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어떤 조건으로 인해 발생도 하고 소멸도 하는 것이므로 불교에는 절대적인 존재, 불변의 영원한 것은 있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다.

우, 그 어디에도 영원불변하는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무한한 불변의 내가 없는데 영혼인들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주체로서 영원한 내가 없는 데 그 무엇이 있어 윤회(輪廻)를 거듭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연기 법칙은 무아사상(無我思想)과 물이 아닌 것이다. 연기를 알면 무아를 알고, 무아를 알면 불교를 바르게 보는 것이다.

깊게 깊게 관조(觀照)할진저, 앎(知)과 봄(見)이 분명할 진저.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 위치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지도이기 때문이다.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 그려진 지도에는 한국은 극동(極東), 동쪽의 끝자리로 되어 있다. 중국 지도에서는 해동(海東), 바다의 동쪽 나라로 칭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므로 변두리도 없고 중앙도 없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을 뿐이다.

연기·무아 알아야 불교 바르게 이해 중심은 곧 나, 동쪽도 서쪽도 없다

신(神) 따위나 절대자의 천지창조 따위는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우주의 형성도 존재도, 조건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인을 알고 보면 돌연변이의 법칙도 의미를 잃고 마는 것이다. 우연은 없고 필연적인 모임과 흩어짐이 있을 뿐이다. 연기(緣起)의 원리에서는 우주를 주재하는 절대적인 ‘브라흐만’도 인정할 수 없듯이 나를 주재한다는 영원불변한다는 ‘아트만’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존재와 사물은 상의성(相依性)의 조건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 완전한 독립체, 영원불변하는 존재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연기의 법칙에서는 불변의 영원한 나를 인정할 수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눈, 귀, 코, 입, 몸, 의식 등이 어우러져 활동할 때 그 집합체, 통일체로서의 세계 지도가 아닌 세계 인구 지도를 그려 포와 신장, 뇌 작용 등) 등이 흩어질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흐메트’의 고향을 메카(Mecca)라고 부른다. 지구의 배꼽이라는 뜻이다. 배꼽은 생명줄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이며 신체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中國)은 이름 그대로 세계의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다. 하여 중원 문화하면 곧 중국 문화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세 사람이 서 있다고 치자. 셋 중 한 명은 중앙에 서 있는 것이 되고 둘은 변두리에 서 있는 꼴이 된다.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은 선택된 인사이드라고 생각하고 변두리 두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아웃사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몇 걸음 옮겨 위치만 바꾸어 서면, 변두가 중앙이 되고 중앙이 변두리가 된다. 영원한 동쪽도, 영원한 서쪽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 서, 남, 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오로지 중앙에 있을 뿐이다. 내가 어느 곳에 이르든 어떤 일을 하던 지구의 중앙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말자. 세계 지도가 아닌 세계 인구 지도를 그려 포와 신장, 뇌 작용 등) 등이 흩어질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조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8cm]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www.hyunbulshop.com